a+u

2004년 12월

a + u 의 2004년 마지막 호의 특집은 노르웨이 건축이었다. 특집의 제목은 "노르웨이: 펜(Fehn)과 오늘날의 노르웨이 건축사(Norway: Fehn and His Contemporary Legacies)"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사였던 스베르 펜과 그 후계자들이라 할 수 있는 현대 노르웨이 건축사들의 작품을 소개한 것으로 스베르 펜 이후 발전해 온 노르웨이 건축의 현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특집이다.

■특집: 스베르 펜과 노르웨이의 건축사들

1930년대의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에는 각각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사가 활약하고 있었다.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속한 국가이면서도 노르웨이에는 알바 알토(Alvar Aalto)도, 군너 아스플란트(Gunner Aspund)도, 아르네 야콥슨(Arne Jacobsen)도 나타나질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노르웨이에서도 양차 대전의 사이 기간에 몇몇 우수한 근대건축물이 세워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베 뱅(Ove Bang)이나 라스 벡커(Lars Backer), 페르 그리그(Per Grieg), 혹은 아르제 코르스모(Arne Korsmo)와 같은 근대주의 건축사들은 노르웨이 밖에서 명성을 떨치지는 못했다.

2차 대전 후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북구의 건축사로는 필란드의 레이마 피에틸르(Reima Piatile)와 유하 레비스카(Juha Leiviska), 스웨덴의 시구르 레베렌츠(Sigurd Lewerentz)와 랄프 어스킨(Ralph Erskin), 그리고 덴마크의 욘 웃존(Jø rn Utzon)과 헤닝 라슨(Henning Larsen)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노르웨이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건축사는 스베르 펜(Sverre Fehn)이었고, 크리스티앙 노베르그 슐츠(Christian Noberg-Schultz, 1926~2000)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건축이론가였다.

이 수 십년간 노르웨이는 급속히 양질의 건축을 다수 만들어 내게 되어갔다. 이제까지 노르웨이의 건축이 지금만큼 해외의 주목을 받았던 적도 없었으며, 또한 젊고 재능이 풍부한 인재들이 배출된 적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질이 향상됨과 더불어 많은 수의 건축사무소들은 기회만 된다면 질 높은 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 노르웨이의 거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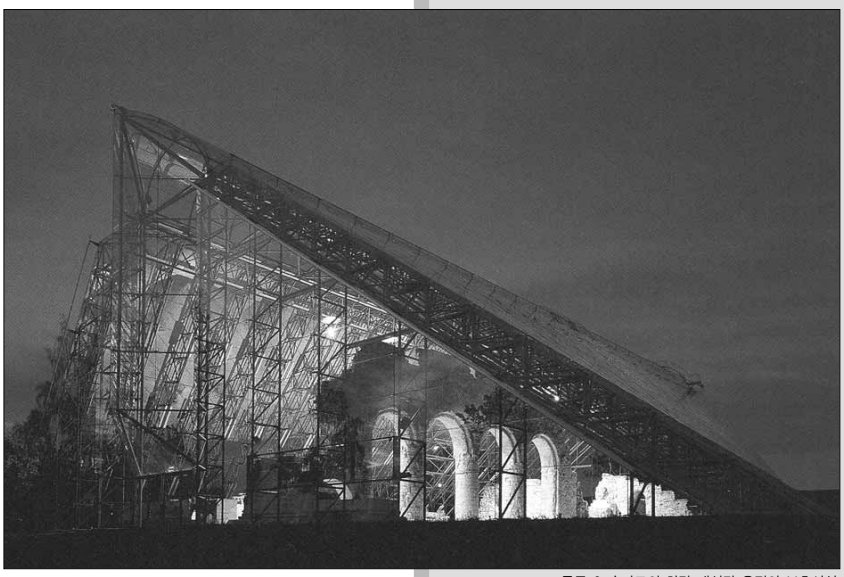
2차 세계대전 당신 학생이었던 이들은 전쟁 이후 우수한 건축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세대교체를 이루며 노르웨이 건축계의 중심에 섰고 이후 오랜 기간동안 노르웨이 건축계를 지배해 왔다. 스베르 펜과 크리스티앙 노베르그슐츠, 그리고 룬드&슬라토(Lund & Slaatto)와 같은 이들은 서로 생각을 공유해 왔으며, 노르웨의 현대 건축의 기반을 닦아왔다.

펜은 노르웨이가 낳은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재능이 뛰어난 실무 건축사이자 건축 사색가이다. 이에 반해 히엘(Kjell) 룬드와 지금은 고인이 된 그의 파트너 닐스(Nils) 슬라토는 펜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고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 펜과 룬드&슬

스베르 펜의 국립사진박물관

라토의 작품은 서로 다른 건축적 인식위에 세워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 있어서 이들 모두 구조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소재가 갖는 아름다움에 관심을 품고 있었다. 또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주요한 건축구조에 대해 기성의 방법에 도전하였던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이와 같은 진지함은 크리스티앙 노베르그슐츠의 이론적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2차 대전 후 그의 저술은 노르웨이의 건축에 그 이론적인 기반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펜의 건축에 대한 공적이 알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매우 강력하게 일어났다.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사중에 그는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사에 속한다. 그의 작품은 1981년 아키텍쳐럴 리뷰지에 피터 쿡(Peter Cook)이 연재하고 있던 "아직 평가 받지 못한 건축사들"이라는 연속 기획에 소개되면서 기사화 되었으며, 2년 후에는 리졸리(Rizzoli) 출판사가 스베르 펜에 대한 최초의 단행본을 내 놓았다. 스베르 펜이 진정으로 대중 앞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97년이었다. 이 때는 코펜하겐의 로열 씨어터의 컴페티션에서 승리하여 프리츠커상을 막 수상한 해였을 뿐만 아니라 하인리히 테세나우 금메달을 수상한 해였고, 그의 작품을 모은 대규모의 순회전이 비첸차의 바실리카 팔라디아나에서 열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의 전 작품을 담은 서적이 간행되었다.



룬두 & 슬라토의 하말 대성당 유적의 보호시설

헬렌 & 하드 (Helen & Hard)의 발베르게의 온실

진정한 오리지널리티를 발휘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펜은 그 작품 속에 커다란 자립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말들은 종종 시적이었으며 그의 스케치는 숙련된 예술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의 건축의 출발점은 미스 반데 로에의 건축이었지만 이미 라르 비크의 화장장 콤페안(1950년)에서 그의 모더니즘은 상징성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삶으로부터 죽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상징하는 한 장의 긴 벽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힘 있고 심플한 표현은 브뤼셀의 세계박람회 노르웨이 파빌리언(1962년)에서도 볼 수 있다. 스베르 펜의 대표작인 노르웨이 하마(Hamar)에 세워진 헤드마크(Hedmark) 박물관은 중세의 폐허와 현대의 소재를 병치한 대범하고 심오한 작품이었다. 펜의 작품에서는 건물의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관계가 주요한 테마이다. 월드 앤드 아트 갤러리(1988년)의 프로젝트에서는 건물은 암반의 배후에 수평의 테라스로서 자태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펜의 작품에서 건물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식적인 인공적 오브제로서 배치되는 경우가 더 많다.

랜드스케이프를 해석하는 것은 크리스티앙 노베르그슐츠의 이론적인 사색에 있어서 중요한 테마였다. 그의 연구는 '장소의 정신'과 생활을 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그는 숲과 눈의 계절 등 자연의 모습에 시적인 기술(記述)을 남겼다. 덧붙여 그는 랜드스케이프의 분석에도 업적을 남겼는데, 건축과의 관계성에 더하여 크리스티앙 노베르그슐츠의 다면적인 연구는 노르웨이의 문화적인 이해를 핵심으로 하는 영역을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을 하였다. 문화사가(文化史家)인 니나 비토스체크는 이렇게 쓰고 있다. "노르웨이의 자연은 1800년대에 감정적 혹은 이상적으로 (노르웨이의 건국에) 깊이 연결되었으며, 그 이래로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연을 그들의 아이덴티티나 국가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1960년대에 룬드&슬라토는 입방체나 피라미드를 기본으로 하여 컴펙트한 건물을 디자인하였다. 1970년대에는 업무에 있어서 구조적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이

는 새로운 환경과 과제를 만나면서 재구축되게 되었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목조건축을 다시 부흥시켜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존재로서, 그들이 작업한 교회 건물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마에 있는 보존건물은 사무소의 가장 중요한 최근의 작품이며, 독창적인 건물인 것이다. 거기에는 경사진 각도가 폐허와 유리에 비춰진 (펜이 설계한)박물관 건물을 대비시키고 있다. 건물의 이면성은 명확한 것이었다. 텐트모양의 보호적인 구조물로 중세의 폐허를 덮어 그것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것은 다시 빛을 투과하는 유리의 성당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 차세대 건축사들

1971년부터 1995년에 걸쳐 스베르 펜은 오슬로 대학(AHO)의 교수로서 교편을 잡았으며, 교육자로서 노르웨이 건축의 한 세대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정치적인 열기가 들끓었던 1970년대에는 또 다른 건축적 과제들이 던져졌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 사람들은 펜의 가르침으로 회귀해 갔다. 젊은 건축사와 펜과의 다리 역할을 했던 아르네 헨릭센(Arne Henriksen, 1944년생)도 AHO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AHO에 교수로 취임하기 전 헨릭센은 국유철도의 건축사무소(NSB)에서 근무하였다. 거기서 그는 일련의 역사(驛舍)들을 설계하면서 몇 개의 국제적인 상을 수상하였다. 헨릭센은 분명히 노르웨이의 철도건축을 부흥시킨 인물이다. 그 역사 건축에 있어서 그는 구조를 중시하였으며, 그 점에서 스베르 펜의 건축에 자극을 받았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얀 올라프 옌센이나 칼 뷔고 홀름백과 같은 젊은 건축사들이 헨릭센과 함께 일하기 위해 NSB에 입사하였다.

얀 올라프 옌센(1959년생)은 학생시절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1984년 옌센은 같은 학생이었던 펠 크리스챤 브륀힐센과 함께 인도의 라슬에 요양소를 설계하였고, 그 작품은 아가 칸 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NSB의 건축사무소에 채용된 후 롤비소이 터미널에 42톤 트럭을 위한 차고(1989년)를 설계하였다. 그것은 열려진 랜드스케이프 안에서 작은 타원형의 건물이 확고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유지한 설득력 있는 디자인이었다. 칼 비고 홀름백(1958년생)은 그 수는 적지만 중요한 건물들을 디자인 하였다. 그 중에는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던 부친을 위한 서재(1991년)나, 혹은 이보다 더욱 뛰어난 것으로 국제적인 평가를 얻은 벽돌조의 원형 정원 덮개와 작업장(1995년)이 있다. 후자는 6.5m 높이의 자립한 벽돌조의 실린더이다. 실린더 속에는 2개의 곡선을 축으로 한 목재 보가 2개 층을 지탱하고 있었다. 홀름백의 실린더형 오피스/창고 건물과 옌센의 타원형 차고는 그 선동된 구조기술과 나아가 그 기하학적인 명쾌함으로 인하여 최근 수 십 년간에 노르웨이에 등장한 기적적인 작품으로서 평가된 실용적 건물들이다.

홀름백이 설계한 리 셀 근교에 세워진 여름의 집(1997년)은 국제적으로 그 작품에 걸맞는 높은 상을 수상한 또 다른 작품이다. 그 혁신적인 구조시스템은 플렉시블한 그리드 상의 정방형 기둥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기둥들은 밖으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소나무의 뿌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오두막의 디자인은 부지 주변의 식생과 토포그라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노르웨이의 건축사에게 있어서 2차 대전 이후 펜의 작품을 중심으로 쌓여진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했다. 그러나 건축의 국제적인 전개 또한 많은 건축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노르웨이도 젊은 건축사들은 고려해야할 범위를 국한시킴으로서 얻어지는 강렬한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젊은 건축사사무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스노헷타(Snø hetta)이다. 1989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한 중요한 컴페티션에서 승리한 이래 그들은 유럽의 주요한 프로젝트의 현상설계에서 당선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젊은 건축사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번역 / 강상훈)

카리 비고 홀름벡의 솔리아의 산장